

#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뜻밖의 결말’의 양상과 의미

- <토끼전>과 <옹고집전>을 중심으로 -

최어진\*

- I. 서론
- II. ‘뜻밖의 결말’이란
- III. ‘뜻밖의 결말’의 양상
- IV. ‘뜻밖의 결말’의 미학적 의미: 새로운 ‘판’을 향한 향유층의 욕망과 관련하여
- V. 결론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토끼전>과 <옹고집전>을 중심으로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뜻밖의 결말’의 양상을 살피고 그 미학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뜻밖의 결말’을 서사내적으로 보았을 때 개연성과 필연성이 떨어지며, 판소리 문학의 일반적 성격을 이탈하는 듯 보이는 결말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뜻밖의 결말’은 ‘합의된 결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개념 정의를 감안했을 때, <토끼전>에서는 자라의 자결이, <옹고집전>에서는 옹고집의 자결이 ‘뜻밖의 결말’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이어서 이 두 작품의 ‘뜻밖의 결말’이 왜 하필 등장인물의 죽음으로 귀결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장끼전> 일부 이본에서 까투리가 자결을 하는 결말, <변강쇠가>의 결말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등장인물의 죽음으로 끝나는 결구는 서사에 내재되어 있는 대립 구도를 해체하여 무화(無化)시키고, 선택과 편들기의 부담을 없앴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자 하는 향유층의 욕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서사작품이 ‘편들기’의 방식으로 결구를 맺는 것과 달리, 판소리 문학은 특유의 개방성과 유연성으로 인해 그와 같은 방식을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는 끝맺기가 가능하리라고 본 것이다.

‘뜻밖의 결말’은 일견 판소리 문학의 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민중의 생명력, 유연한 사고, 해학성 등과는 배치되는 듯 여겨지지만, 완전하게 자유롭고 새로운 삶에 대한 회구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판소리 문학으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핵심어: 뜻밖의 결말, 결말, 결말구조, 등장인물의 죽음, 자결, 토끼전, 옹고집전

## 1. 서론

1990년대 후반 판소리 전집이 출간된 이후로도, 판소리 문학<sup>1)</sup>의 존재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지속되어 왔다. 전집에 포함되지 못한 이본들을 최대한 수집·독해하여 활자화한 일련의 연구들이 소개되었으며, 역주본과 현대어역본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이로써 개별 이본의 독자적인 면모를 밝혀내거나 특정 대목의 변이를 추적하는 등의 미시적 연구가 가속화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양한 이본들이 지속적으로 소개·연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소리 문학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단일한 ‘이미지’가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테면, 판소리 문학은 민중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는 가, 성리학적 사유로부터 이탈하여 새로운 시대의 인간상과 현실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시각 등이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관점으로부터 떨어진 이본들은 해당 작품군의 주제의식을 이탈했다고 평가되거나 판소리 문학의 미학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로 취급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관점이 그간의 미시적 연구를 통합해서 새롭게 도달한 결론이라기보다, 판소리 문학 연구 초창기부터 제안된 것이라는 데 있다. 물론

1) 여기에서는 소설본과 장본을 통칭하는 용어로 판소리 문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판소리 문학의 본연적인 가치가 민중의 생명력이나 현실성, 일탈과 해학 등에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sup>2)</sup> 다만 판소리가 경쟁력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가 “삶의 진실성과 관련된다면 얼마든지 끌어 쓸 수 있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생략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sup>3)</sup>에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 판소리 문학은 개별 이본의 수준에서 좀 더 음미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기왕의 많은 이본 연구에서는 계열을 나누거나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면서, 계열별·시대별 특징 등으로 귀결될 수 없는 특이점들이 도외시되기도 했다. 본고에서 흔히 알려진 판소리 문학의 ‘합의된’ 서사나 정서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이본들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충격적이고 이질적인 결말에 주목하고, 이로써 구현되는 미적 특질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그간의 미시적 연구들의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판소리 문학의 미학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가능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뜻밖의 결말’이란

일반적으로 판소리로 선택된 이야기들은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sup>4)</sup> 그러나 수많은 이본들의 개별 서사에 주목해보면, 과연 이 모든 이야기들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이 가능한가 자문하게 된다. 한편 작품 단위에서, 춘향이 이도령과 재회하거나 심청이 심봉사와 해후하는 결말처럼 어떠한 이본에서도 부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결말에 춘향의 신분이나 심봉사의 출신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월매나 뽕덕머미가 얼마나 활약하는가 하는 점과도 무관하다. 등장인물들은 행복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판소리 문학에는 분명 일관된 주제의식과 정서, 합의된 서사가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결말’<sup>5)</sup>을 살펴보는

2) 정병욱은 판소리 예술의 특징을 “서민 의식의 반영, 사실적인 표현, 희극미의 구현”으로 들었다(정병욱, 『한국의 판소리』, 집문당, 1981, 90면).

3) 정병현, 『판소리의 미학적 성격』, 판소리학회 편, 『판소리의 세계』, 문학과지성사, 2000, 64면.

4) 정병현, 위의 논문, 53면.

일일 것이다. 결말부는 전체 사건이 끝나면서 등장인물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sup>6)</sup> 고전소설에서 결말이 지니는 의미와 한국인의 의식을 연관시켜 이해하고자 했던 일련의 연구들이 말해주듯,<sup>7)</sup> 결말은 작품을 읽는 독자들을 의식한 결과인 동시에 독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결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더라도 ‘결말’이란 무엇인가, 어디부터 ‘결말’이라고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끝(종말)’이란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또는 대개 다른 것 다음에 존재하고, 그것 다음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고 했다.<sup>8)</sup> H. 포터 애벗은 갈등의 해결로서 ‘종결(closure)’이 서사의 ‘끝(ending)’에 오는 것은 아니며, 종결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끝과 종결을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sup>9)</sup> 다만 고전소설의 경우에는 대부분 종결과 끝이 일치하므로,<sup>10)</sup> 판소리 문학에서의 ‘결말’이란 주인공의 최후가 결정되고 갈등이 마무리되며 동시에 작품이 막을 내리는, ‘끝으로서의 결말’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유념하면, <심청전>이나 <춘향전>의 결말은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sup>11)</sup> 심청과 심봉사, 춘향과 이몽룡의 최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sup>12)</sup> 한편 <흥부전>의 경우에는 현재

- 5) 논자에 따라 ‘결말’, ‘결말부’, ‘결말구조’ 등으로 쓴다. 전통적 플롯 개념에서 서사물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며, 끝(ending), 종결(close), 대누망(denouement)이 함께 쓰이기도 한다(한용환, 『소설학사전』, 문예출판사, 1990, 37면).
- 6) 인권환, 『<도끼전>군 결말부의 변화양상과 의미』, 『도끼傳·水宮歌 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224면.
- 7) 서대석,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과 한국인의 의식』, 『관악어문연구』 제3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서인석, 『고전소설의 결말구조와 그 세계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윤분희, 『한국 고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결말처리 방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등.
- 8)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2002, 56면.
- 9) H. 포터 애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115~116면.
- 10) 서인석, 앞의 논문, 12면.
- 11) 정출현은 춘향과 이도령의 결합, 심청과 심봉사의 해후와 개안, 흥부의 성공과 늙부의 과멸이 모두에게 ‘합의된 결말’이었다고 보았다(정출현, 『봉건국가의 해체와 <도끼전>의 결말 구조』, 최동현 외, 『수궁가 연구』, 민속원, 2001, 263면).
- 12) 다만 모든 이본의 결말의 완전히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를테면 <심청전>에서는 안씨맹인의 등장 여부에 따라 결말이 달라진다.

부르고 있는 소리 중에서 ‘놀보 박 타는 대목’이 없는 경우가 있어 별도의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sup>13)</sup> 이 대목이 없는 <홍부가>는 놀부가 제비를 몰러가는 대목까지만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놀부는 벌을 받지 않은 채 끝난다. 놀부의 징치와 관련하여 <홍부전>의 결말이 양분되는 현상은 이 작품이 완전한 합의를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주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까닭에 그간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것만, <심청전>의 뽕덕어미 삽화 역시 비슷한 사례로 취급될 수 있다. 완판본 <심청전>의 결말에서 뽕덕어미는 능지처참을 당하지만 신재효본에서는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이다. 뽕덕어미와 같은 인간에 대한 상이한 시선과 평가가 그의 최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sup>14)</sup> 더욱이 일부 작품군에는 셋 이상의 매우 다양한 결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써 개별 작품이 구축해내는 정서와 미학 역시 다층적이다. 판소리 문학의 결말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본고에서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결말 변이의 다양함 그 자체는 아니다. 판소리 문학이 어떤 고전소설보다 풍부한 이본군을 지니고 있으며, <토끼전>을 비롯한 일부 작품군에서 결말의 양상 또한 매우 풍부하다는 점에 대해 재차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무수한 결말의 변이중에서도 지나치게 특이해서 적극적으로 다루지지 못한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결말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이를테면 판소리 작품군의 일부 이본은 한국고전소설에서 일종의 관례처럼 취급되어 온 행복한 결말과는 정반대의 결말을 보여주거나, 판소리 문학의 민중성이나 해학성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끝이 난다. 앞부분의 서사를 통해 예견되거나 예비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 여타 대부분의 이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느 경우든 작품군 내부에서 상당히 이질적으로 여겨지고 예외적인 사례로

13) ‘놀보 박 타는 대목’이 없는 <홍부가>에 대해서 김종철은 “작품의 중요한 부분이 붕괴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하였는데(김종철, 『홍부전』, 『고전소설연구』, 화경고전소설연구회, 1993, 560면), 이는 이 대목이 있어야 모방담으로서 완전하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정충권의 견해와 상통한다(정충권, 『홍부전 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3). 한편 최동현은 이 부분이 오늘날까지도 들고나는 현상에 주목하고 <홍부가>가 설화적 연관을 끊고 완전한 예술로서 “질적 전환”을 달성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았다(최동현, 『<홍부가> ‘놀보 박 타는 대목’의 전승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제35집, 판소리학회, 2013).

14) 최어진, 『<뽕덕어미> 삽화 전승의 차이와 그 의미 - 완판본과 신재효본 비교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40집, 판소리학회, 2015.

취급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상의 점들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결말을 ‘합의된 결말’과 상대적인 의미에서, ‘뜻밖의 결말’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sup>15)</sup>

요컨대 ‘뜻밖의 결말’은 서사내적으로 보았을 때 필연성과 개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sup>16)</sup> 판소리 문학 일반의 성격을 이탈하고 있는 듯 보이는 결말이다. 따라서 해당 작품에 대한 다수 향유자들의 기대를 일정하게 벗어난다. 결말의 양상이 이질적이고 충격적일수록 적극적으로 의미화 되지 못하고 그저 돌출적이거나 예외적인 사례로 취급되어왔던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이본의 변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긍정할만한 방향과 수준”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상기했을 때,<sup>17)</sup> ‘뜻밖의 결말’과 관련 하여서는 돌출성 자체보다는 거기에 반영된 향유층의 요구와 욕망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리라는 생각이다. 이 요구가 비록 크기 면에서 주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상의 점에 유념하면서, <토끼전>과 <옹고집전>의 결말을 중심으로 ‘뜻밖의 결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두 작품의 경우에는 셋 이상의 결말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그 중에서 ‘뜻밖의 결말’을 비교적 분명하게 꼽을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미화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함께 논의할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sup>18)</sup> 필요한 경우에 다른 작품들을

15) 후술하겠지만 이 ‘뜻밖의 결말’은 개연성이나 필연성이 아예 없는, 터무니없고 황당해서 설명되지 않는 결말과는 다르다.

16)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의 결말에 대해, 김한식은 “개연성이나 필연성에 의해 지탱되는 소설의 논리에 따라 갈등이나 대립을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를 수밖에 없는 제약된 행위”라고 말한 바 있고(김한식, 『소설의 결말을 위한 시론』, 『프랑스어문교육』 제7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1997, 241면), 강유정은 “수많은 가능성(개연성)들이 선택에 의해 좁혀져 단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개연성에 따라 가능성이 삭제된 상태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말했다(강유정, 『오정희 소설의 결말 구조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59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192면).

17) 김종철, 『소설의 이본 파생과 창작 교육의 한 방향』, 『고소설연구』 제7집, 한국고소설학회, 1999, 359면.

18) 판소리 문학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특이하고 이질적인 결말에 대해서라면 <장끼전>과 <변강쇠가> 또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장끼전>의 결말에 대해서는 아예 합의된 결말이 부재했다는 의견이 있고(최혜진, 『<장끼전> 작품군의 존재 양상과 전승 과정 연구』, 『판소리연구』 제30집, 판소리학회, 2010), <변강쇠가>의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김종철, 『변강쇠가와 기괴미』,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등), 다양한 결말 변이나 그들 간의 층위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함께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판소리 문학 전체를 통해 의미를 조망하는 부분에서는 함께 다루고자 한다.

함께 언급하기로 한다.

### III. ‘뜻밖의 결말’의 양상

#### 1. <토끼전>의 경우: 자라의 자결

<토끼전>은 이본이 120여 종에 달하며,<sup>19)</sup> 어떤 판소리 문학에서보다 그 결말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p>20)</sup> 흔히 알려진 <토끼전>의 결말은 토끼는 살아서 육지로 돌아오고, 용왕은 쾌유한다는 것이다. 이는 <토끼전>의 근원설화인 『삼국사기』 <구토지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오늘날 소리판에서 부르고 있는 판소리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보인다. 그러나 <토끼전>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토끼전>은 토끼, 용왕, 별주부의 대립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곧 조선 후기 “사회적 전형”<sup>21)</sup>들 사이의 대립이라고 보는 데는 함의를 본 듯하다. 서사가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을 상기했을 때, <토끼전>의 다양한 결말은 곧 갈등 관계에 놓인 존재들 사이에서 일종의 ‘편들기’가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sup>22)</sup>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이 다양한 결말 중에서 어떤 것에 ‘뜻밖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뜻밖의 결말’은 ‘편들기’의 맥락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점 등이 될 것이다. 이상에 문제에 답하기 위해 <토끼전>으로 돌아가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에 따르면 결말은 ‘개연성’과 ‘필연성’에 의해 지탱된다.<sup>23)</sup> <토끼전>은 병 든 용왕을 살리기 위해 토끼의

19) 조희웅,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 1999, 794~809면.

20) 최근의 논의로는 김동진, 『토끼전 연구』, 민속원, 2003; 김동진, 『수궁가·토끼전의 연변 양상 연구』, 보고사, 2007; 최광석, 『토끼전의 지평과 변이』, 보고사, 2010; 이진오, 『토끼전의 계통과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등이 있다.

21) 조동일, 『<토끼전(별주전)>의 구조와 풍자』, 최동현 외, 앞의 책, 180면.

22) “서사는 갈등을 겪고 있는 어느 한편 혹은 또 다른 한편의 입장을 형성한다(H. 포터 에벗, 우찬제 외 역, 앞의 책, 114면).” 정충권 역시 결말이 “특정 인물 편들기”에 의해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정충권, 『<토끼전> 결말의 변이양상과 고소설의 존재 방식』, 『새국어교육』 제71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541면).

23) 각주 16번 참조.

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이는 용왕이 병이 든 이유, 약을 일러주는 존재, 별주부의 지위, 별주부가 육지행을 자원했는가의 여부 등 개별 이본에 나타나는 변이들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그러니까 <토끼전>은 ‘용왕’과 ‘토끼’ 중에서 한 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전체를 지니고 있다. <토끼전>의 필연성이나 개연성은 바로 이 범위 안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유념했을 때, <토끼전>의 결말 중에서 가장 ‘뜻밖의’ 경우는 바로 ‘자라의 죽음’일 것이다.<sup>24)</sup> ‘자라의 죽음’은 <토끼전>이 전체로 하고 있는 대립, 즉 ‘용왕이 죽느냐, 토끼가 죽느냐’의 문제를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지행의 위험성이야 작품의 초반에 자세히 설명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자라는 육지에 나갔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자라는 자결한다.

즈러 홀 일 업서 탄식 왈,

“간특훈 툇기의게 속고 하 면목으로 도라가 왕을 보리오 출허리 독음만 갖지 못하다.”

흐고 글롤 지어 뵈회 후회 붓치고 머리롤 뵈회의 쌍쌍 부디이쳐 독엇더라 (경관 <토끼전>, 8- 뒤)<sup>25)</sup>

자라는 육지에 나가서 토끼를 피어 수궁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토끼는 기지를 발휘해 자라와 다시 육지로 나오고, 그 길로 도망가 버린다. 토끼를 놓친 자라는 다시 왕을 볼 낮이 없다며 머리를 바위에 부딪쳐 자결(自決)한다.

자라의 죽음은 자못 돌발적이고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연구에서는 자라의 자결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계열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표지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문학 작품에서 결말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토끼전>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축약된 발화로 형식적인 차원에 불과하며 작품의 구조에 결정적인 변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기도 했다.<sup>26)</sup> <토끼전>의 결말이 형식

24) <토끼전> 전집에 실린 이본 총 74종 중에서 자라의 죽음이 확인되는 이본은 10여 종에 달한다.

25) 본고에서 사용하는 <토끼전>의 인용문은 모두 김진영 외 편, 『토끼전 전집』 1-6, 박이정, 1997에서 가져왔다. 문장부호와 강조표시는 인용자. 다만 창본의 경우 최동현 교주·박승배 번역, 『현영대역 수궁가 바다별 전집』 1-5, 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발행, 신아출판사, 2010을 추가로 참고하였다.

적인 차원이라는 데 동의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채워진 결말이 왜 하필 예비되지 않았던 ‘자라의 죽음’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 별도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자라의 죽음으로써 새롭게 구축되는 작품의 의미에 대해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는 자라의 죽음의 이유를 면밀히 고찰해보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자라의 자살은 이본마다 결이 달라 섬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같은 계열로 분류되는 경판 <토성전>과 국립도서관 소장본 <토성전>(이하 국도본 <토성전>)에서조차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 주목된다. 국도본 <토성전>의 자라 자결 대목이다.

혈 말이 전혀 읊서 혼숨 지으며 탄식 왈,  
 “속담에 이른 말이 닭 쫓든 기는 짚 우회는 치여다보련마는 나는 웃지하리요  
 특기 무슈히 육만 호고 간도 아니 주고 산중으로 가니 그런 발촉흔 놈은 보기를  
 처음 보앗도다 그러는 저러는 우리 더왕이 무식하여 간교를 모르고 그 놈에 속  
 아도다 더왕은 특기 간이는 오더 오는가 기다리고 잇는디 뵈 손을 가지고 하면  
 목으로 왕을 다시 보리요 죽을만 갖지 못하다.”  
 (국도본 <토성전>, 27-앞, 뒤)

자라가 토끼를 놓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나는 어찌하리요?’이다. 이것은 신세한탄에 가까운데, 말하자면 자신의 신세가 닭 쫓든 개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대왕이 “무식”하여 간교를 모르고 토끼에게 속았다면서 왕을 탓하기에 이른다.

‘모년 모월 모일에 복희 용궁 별주부 자라는 왕명을 받즈와 만리타향에 나왔  
 다가 성공치 못하옵고 부모동성을 여회고 죽으니 망극하오며 주부 벼슬이 잇스  
 니 웃지 더욱 망극지 아니리오 왕이 병환이 극중히시되 자원하여 만경창과에 와  
 천형으로 특기를 잡아드려 갖더니 간스흔 말을 왕이 고지 듯고 나도 속고 또 다  
 리고 나왔드니 특기가 간도 주지 아니하고 도로혀 모욕을 무슈히 하니 웃지 살  
 기를 바라리요 칠알히 죽어 지하에 드러가 지부심쌍게 지원극통헌 정원을 흐려  
 호오니 천지일월성신과 산천후토신령은 살피옵소서 오호라 통지라 자라는 인군

26) 최광석, 앞의 책, 23면.

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하였다가 노이무공이 되었습기로 인군에 급환을 구치 못하  
옴고 만리 밖게 와 다시 인군을 뵈옵지 못하옴고 일국 신민을 불 낮치오며 회국  
호를 마음 읍스와 이 곳에서 절사하옵는이다. (국도본 <토싱전>, 27-뒤~28-앞)

결국 별주부는 마지막 글을 남기고 바위에 머리를 박고 죽는다. “인군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하”다가 다시 돌아가 볼 낮이 없으므로 “절사(節死)”하겠다는 별주부의 말은 언뜻 ‘충(忠)’의 소산처럼 느껴진다. 경판본이나 국도본에 나타난 자라의 죽음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이념적 죽음”<sup>27)</sup>이라고 본 견해는 바로 이와 같은 자라의 말에 주목한 결과이다. 자라는 용왕에 대한 ‘충’ 때문에 죽은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토끼로부터 간도 얻지 못하고 모욕만 받았으니 살기를 바랄 수 없다는 앞부분의 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라는 모멸감에 시달린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왕을 위해 자원하여 육지로 나왔으며, 천행으로 토끼를 잡아왔더니, 토끼의 “간스흔 말을 왕이 고지 듯”고 말았다는 서술에서는 왕에 대한 원망과 한탄이 느껴진다. 자라의 내면을 따라 읽었을 때, 충성을 다 하다가 “노이무공(勞而無功)”이 되고 말았다는 자라의 최후의 말은 이념에 대한 복종보다는 이념에 대한 회의에 가까워 보인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경판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정서이기도 하다.

한편 가람본 <별도가>에 나타난 자결 장면을 보자.

잇 더 主傳난 특기를 失捕호고 기가 막혀 우난 말이,  
“이고 이고 어디 가서 특기를 잡고 일어케 麥浪흔 일 또 잇는가 니 忠誠 不  
足던가 大王의 命이 잘으던가 水宮까지 갔던 특기를 못잡아 藥을 호고 靑山碧溪  
너른 곳세 돌오니 放送호니 四海八方 無定處의 어디 가서 잡으리오 大王이 不幸  
호면 水宮天地許多事을 다시 杼와 相議호여 우리나라 구든 사직 솔절읍시 되어  
구나 哀告 哀告 설운지고 이 니 面目 밧오 들어 우리 水宮 못가게네.”

淸江斜日 빛긴 길로 瀟湘江 도라가서 디습풀의 으지호여 亡命호야 사난 골오  
그 자손 世上의 편만호고 (후략) (가람본 <별도가>, 43-뒤)<sup>28)</sup>

27) 정충권, 앞의 논문, 531면.

28) 이 장면은 조동일 소장 <별주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

잇 더 杼부 특기를 실패호고 기가 막혀 우는 말이, “이고이고 이러흔 밍냥흔 일도 어디 인는가  
니 忠성 부족호고 더왕 명이 흐르던가 슈궁거지 간 특기를 못잡아 약을 호고 청산벽계 너른

토끼를 놓치자 자라는 기가 막혀 울음을 터뜨린다. 그리고는 자신의 충성이 부족한 것인지, 대왕의 명이 짧은 것인지 되묻는데, 아마도 자라는 신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용왕의 운명이 그리하니 별 수 없으리라는 복잡한 심경에 놓여있는 듯 보인다. 다만 수궁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도 소상강변으로 망명하여 나름대로 삶을 지속한 것은, 죽을 지경으로 괴롭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궁의 삶에 별다른 미련이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앞서 모멸감에 시달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국도본 속 자라의 모습과는 대별된다. 그런데 후일 암자라가 죽고 용왕은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자결하기에 이른다.

鰲夫人 암자리는 兎先生 離別後의 相思로 病이 되어 數月 呻吟타가 속절없이  
 죽어시니 水宮의서난 그 잔속을 모르고서 主傳을 싱각하여 물어하다 하고 龍王게  
 장문하여 貞列을 표하여고 龍王도 특기 기다리다가 病이 漸漸 더하여 世子의계  
 傳位하고 別宮으로 피하여더니 그 後의 赤勳公 鯉魚가 罪을 입어 洞庭湖로 定配  
 갔다가 마침 主傳을 만나 그 消息을 傳히니 主傳 痛哭하고 그 길로 도라와서 娥皇女  
 英게 冤情을 울어 授明하고 卽時 自結히니 (가람본 <별도가>, 43-뒤~44-앞)

이상과 같은 자라의 자결은 전집에 실린 이본 중에서는 조동일 소장 <별주  
 전> 이외에도 국도본 <별주부전>, 하버드대 <중산망월전>, 나손문고 낙장  
 35장 <토끼전>, 임형택 소장 52장 <兎處士傳> 등에서 나타난다. 이들 이본에  
 서 자라가 왜 죽었는지 확실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한 경우도 있지만,<sup>29)</sup>  
 대부분 자라가 ‘충’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를 낚은 윤리에만  
 매달리는 우둔한 인물로 보는 견해나,<sup>30)</sup> 부패한 봉건통치체제에게 이용당하  
 고도 그 부당함을 깨닫지 못해 결국 희생되는 인물로 보는 견해<sup>31)</sup> 모두 그의  
 행위가 ‘충’의 소산이라고 여긴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문면상으로는 수궁의 ‘여러’ 소식을 듣고 그가 심적으로 괴로웠으리

곳데 도로 니다 방송히니 스희팔방 무정처의 어더 가서 줍부리요 우리 디왕 불헝하면 슈궁천지  
 허다스를 다시 놀과 상의호리 우리나라 구든 스직 속절업시 되어구나 인고이고 슬은지고 이  
 면목 바로 ○○ 우리 슈궁 못그라.” (조동일 소장 <별주전>, 33-앞)

29) 정충권, 앞의 논문, 531면.

30) 조동일, 앞의 논문, 180면.

31) 정출현, 앞의 논문, 270면.

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자라의 죽음의 이유를 ‘충’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분명한 것은 자라가 토끼를 놓치고 수궁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할 때 이미 용왕의 죽음을 예견했으리라는 점뿐이다. 토끼를 놓치고 ‘대왕의 명이 짧은 것인가’ 되문던 그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용왕의 병이 악화되어 세자에게 양위하였다는 사실이 자라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자라의 자결을 ‘충’으로 이해하면서도, 이때 ‘충’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것인가 하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남의 날아의난 忠臣이 잇서 割股事君 介子秋 諫楚亡身 記辛이도 獨을 人君 살어  
 신이 君臣有義 重홀시고 실푸다 우리 水國 萬魚之中의 鬪臣이 읍서시니 이 아니  
 冤痛흔가 죽을 밧게 슈가 읍다 익고 익고 설운지고.” (가람본 <별토가>, 5-뒤)

자라가 육지로 나갈 때 용왕이나 노모, 별주부 부인의 입을 통해 ‘충(忠)’, ‘충신(忠臣)’, ‘군신유의(君臣有義)’, ‘봉명사신(奉命使臣)’ 등이 언급되며 자라의 행위가 지닌 의미가 강조된다. 가람본에서는 용왕이 직접 충신으로 “介子秋”와 “記辛[=紀信]”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들은 임금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른바 ‘충은 곧 목숨을 다하는 것[忠則盡命]’이므로, 목숨을 걸고 두 번이나 육지행을 감행한 자라는 ‘충신’이 되는 것이다. 이는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하지 못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현재 소리판에서 부르고 있는 대부분의 <수궁가>에서 자라는 토끼를 놓치지만 용왕은 완치된다. 자라의 충성스러움 때문이다.<sup>32)</sup>

그러나 자라가 충신이라고 해서 그의 모든 행위가 ‘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토끼를 놓치고 그 자리에서 자라가 죽어버린다면 용왕은 영문도 모른 채 한없이 기다려야 할 운명에 처한다. 그리고 그 운명의 끝은 예외 없이 죽음이다. 박순호 소장 <토별산수록>에서 자결하려던 자라가 “니 일신 죽자면 니 충성 다투고 알고”라면서, 차라리 수궁에 돌아가 일의 연유(緣由)를 고하고 “병세 만일 불행하여 황천길기 될 터니면 나두 죽어 싸라가서 충절을 디전히리

32) <심정순·곽창기 창본>, <이선유 창본>, <김연수 창본>, <정광수 창본> 등에서는 별주부의 충성에 감응한 제3의 존재가 약을 일러주거나 다투게 해준다.

라.”(62-앞) 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은 자라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것이 결코 ‘충’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의 소산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애초에 자라의 육지행이 순수하게 ‘충’의 소산이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별뿔뿔 깃거하여 스스로 생각하되,  
‘저 툇기를 잡아다가 우리 디왕기 드려 병환이 느흐시면 니 맛당히 일등 공신  
이 되리로다.’ (경판본 <토성전>, 1-뒤~2-앞)

자리 마음에 환천회지하여 스스로 생각하되,  
‘저 독기를 잡아다가 우리 대왕게 드려 약을 흐면 니가 슈궁에 웃듬 공신 되  
리로다.’ (국도본 <토성전>, 3-앞)

육지로 나간 자라는 토끼를 마주하고 ‘일등 공신’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공신이 되겠다는 것은 자라가 토끼를 잡아다가 용왕을 살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얻어질 부차적 이익이기에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부차적 이익에 대해 굳이 언급하며 미리 기뻐하는 자라가 순수해 보이지는 않는다.<sup>33)</sup> 물론 자라의 속마음과 무관하게 용왕은 자라를 충신으로 여겼지만 말이다.

자라가 용왕의 소식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면, 암자라의 소식에 죽기로 결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가람본이나 조동일 소장본 속 자라는 육지로 떠나기 직전 아내를 못 잊겠다고 고백하고 남생이와의 관계를 경계하는 등 부인의 정절에 집착한다. 하지만 수궁에 들어와 궁지에 몰린 토끼가 목숨을 위협하며 부인과의 동침을 요구하자, 자라는 부인더러 어찌 “혼궤 정열만 밋스옵고 권도를 좇지 아이호오릿?”<sup>34)</sup>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라가 부인을 대하는 태도는 일관성이 떨어지며, 자기중심적이다. 자라는 윤리

33) 박순호 소장 <수궁별주부산중토처사전>에서는 토끼를 잡아다가 “대왕에 혼후를 평복호은 후에 벼살리 놀과 대사마 대장군 될”(28-뒤) 것이라며 노골적인 신분상승의 욕구를 말하기도 한다. 최광석은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고 자라가 충을 매개로 신분상승을 욕망했고, 자라가 죽는 것은 순수하지 못했던 그의 욕망이 그를 ‘파멸’로 이끈 결과라고 보았다(최광석, 앞의 책, 81~82면).

34) 조동일 소장 <별주전>, 26-앞.

에만 매달리는 이념적 인물이 아니라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현실적 인물에 가깝다. 자라가 아내의 죽음 때문에 자결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이는 까닭이다.

자라의 자결은 바로 이러한 그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에야 그 의미가 온전히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라가 자결하는 거의 모든 이본에서 용왕도 죽는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토끼전>이 서사의 개연성과 필연성을 파기하면서까지 자라를 죽음으로 내몬 이유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 2. <옹고집전>의 경우: 옹고집의 죽음

<옹고집전>은 못된 옹고집을 벌주기 위해 도승이 허용을 만들어 그와 진가(眞假)를 다투게 하고, 곤욕을 겪은 옹고집이 개관천선에 이르는 이야기이다.<sup>35)</sup> 작품의 주제의식은 ‘적악지가(積惡之家) 필유여악(必有餘惡) 적선지가(積善之家) 필유여경(必有餘慶)’이라는 말로 작품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옹고집전>의 이야기야말로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주제의식을 가장 잘 형상화하고 있는 판소리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옹고집전> 서사의 개연성과 필연성은 바로 이와 같은 고전소설의 관습에 기원을 두고 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른 옹고집은 쫓겨나고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잘못을 깨닫고 선행을 베푸는 옹고집은 결국 다시 포섭되는 이야기는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다. 문제는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끝나는 <옹고집전>의 이본이 있다는 사실이다.

저 혼자 단독 일신 혼즈 안저 허허 탄식하는 말이,

“이고답담 서툰지고 스톱나라 하는 것니 디장부로 숨기거든 부귀공명은 고스 하고 활人단심의 선심공덕으로 일음이 업씨 스러셔 무엇할리 아미도 선심공덕 못 다하고 나 죽으면 엇지 할고.”

35) 최혜진에 의해 현재 확인 가능한 <옹고집전>의 이본목록이 소개된 바 있다(최혜진, 『<옹고집전>의 이본과 변모 양상 연구』, 『판소리연구』 제36집, 판소리학회, 2010, 598~599면). 이 중에서 16종이 서유석 외, 『옹고집전·배비장전의 작품세계』, 보고사, 2013에 실려 있다. 이하 본고에서 사용하는 <옹고집전>은 모두 이 책에서 가져왔다. 일부 이본은 원본의 면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때에는 교주본의 면수로 표기한다. 문장부호와 강조표시는 인용자.

한참 탄식하다가 뺏뺏 서서 죽어진이 엇더헌 스흘은 선심공덕하야 부체죽엄  
 하고 엇더헌 스흘은 불의지스 하야쓰가 변강쇠 시절이라. (김동욱 소장 20장본  
 <옹고집전이라>, 19-뒤)

김동욱 소장 20장본 <옹고집전이라>(이하 김동욱 20장본)에서 옹고집은 선심공덕을 다하지 못하고 죽을 일을 걱정하더니 이내 뺏뺏하게 서서 죽음을 맞이한다.<sup>36)</sup> 옹고집이 죽는 결말은 현전하는 <옹고집전>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매우 드물다. 강전섭 소장본 <옹고집전 권지단이라>에서도 옹고집이 죽긴 하지만, “저 명대로 스드가 압파셔”(255면) 죽는다고 되어 있으니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김동욱 20장본이 유일하다. 무엇보다 옹고집에게 개과천선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 복귀하는 것이 <옹고집전>이 말하는 필연성임을 상기했을 때, 개과한 옹고집이 “변강쇠”마냥 죽고마는 김동욱 20장본의 결말은 매우 뜻밖이라 할 만하다. 작품으로 돌아가보자.

옹고집의 죽음이 지닌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검토해볼 부분은 노승이 일러준 옹고집의 운명이다. 옹고집을 찾아간 노승이 시주를 권하였다가 퇴짜를 맞고, 대신 옹고집의 관상을 일러준다.

도성이 나아가 상을 보되,

“일각이 신명함이 아조 단명할 거시오 천정이 허약한이 고집부통할 거시오  
 눈만즈가 견고함이 즈손이 불길하고 이문이 죠바씨니 남의 말을 안이 듯고 준두  
 가 틀녇씨니 용심인들 없슬손야 비통리 크고 등이 구버신이 후분 팔즈 기박하고  
 코 큰 즈는 녀이 크다한이 호식탐지 할 거시오 양감상훈식뇌 되어 뺏뺏 말나 죽  
 을 시의 큰소리하고 죽으리라.” (김동욱 20장본, 3-뒤)

도승의 말은 옹고집은 팔자가 기박하며 단명(短命)할 것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김삼불 교주본에서도 “오사(誤死)도 할 듯하고 말년에 상한병(傷寒病)을 얻어”(94면) 고생하다 죽을 것이라 예언한다. 그렇다면 옹고집이 죽고 마는 김동욱 20장본이야말로 유일하게 도승의 예언이 적중하는 결말로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sup>37)</sup> 그러나 해당 이본에는 옹고집에게 관상을 보아준 내용이 “옹

36) 김동욱 소장본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유경, 『단국대 20장본 <옹고집전이라>의 특징과 의미』, 『한국학연구』 제57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참조.

가의 지지를 보려 하고 잠간 조롱”(4-앞)한 것이라는 노승의 말이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관상풀이는 도승의 회작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노승은 옹고집을 향한 가혹한 징벌을 꺼리는 인물이라는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

도승이 기가 막혀 제우 분흔 마음 짐작하고 본스로 도라온이 상좌덜이 니달  
의며,

“신님 평안이 단여오시오 또 옹가 붙이지사는 엇지 호고 오신잇가?”

(중략) 상좌 닷고 녀즈오되,

“설치호을 피가 잇소.”

“무슨 피가 잇난야.”

훈디

“신님의 전갈 모와 소성이 넘니국을 득달하여 넘니왕계 전갈하녀 옹고집을  
잡어다가 지옥의 가두어싸가 냉불출세 호올이다.”

**“그난 너무 박절호드.”**

“그어하면 또 조흔 쏘가 잇쇼 우리 성불 서가여러 천박연화 신희녘신이 이니  
몸도 변목호여 빅송고리미가 되야 청천 말 이 활적 나라 영남千里 니러가서 옹  
성원 집을 비리보고 공중의 소사싸가 주홍의 빅표적으로 덩실 어켜 찌드러가 옹  
고집의 디갈박을 두 발노 덩벽 쥐고 신님 몰라보난 눈을 아쵸 쌍쌍 푼내오면 신  
님의 므음니 엇더거쇼.”

**“그 일도 못써거드.”**(후략) (김동욱 20장본, 4-앞뒤)

옹고집이 노승을 박대한 사연을 듣고 제승(諸僧)이 모여 그에게 어떤 형  
벌을 내릴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대목이다. 제승들은 하나같이 옹고집을  
잔인하고 가혹하게 죽일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노승은 그것이 ‘너무 박절  
하다’고 하거나 ‘못 쓰겠다’고 하면서 거부한다. 그래서 고안해 낸 방법이  
바로 쥘단으로 허옹을 만들어 옹고집을 골려주는 것이었다. <옹고집전>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노승의 논리는 곧 작품의 논리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므로, 옹고집을 향한 가혹한 형벌은 작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옹고집의 죽음이 서사내적으로 예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

37) 이유경은 옹고집의 죽음은 도승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라고 보았다. 끝내 옹고집이 용서되  
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이유경, 위의 논문, 289~290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고집전>에서 옹고집의 죽음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의 최후는 계열 분류와 관련하여서도 의미 있는 표지로 인식되지 않았다.<sup>38)</sup> 그런데 김동욱 20장본에는 옹고집이 죽는 결말 이외에도 다른 이본에는 보이지 않는 특징적인 삽화가 존재하는 한편, 창본의 성격 또한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sup>39)</sup>

옹고집은 허웅과의 다툼에서 패배하고 쫓겨나 유리걸식을 하는데, 김동욱 20장본에서는 이 과정이 제법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익고 익고 서룬지고 富貴功名 ㅎ던 이니 몸이 결직 되어신이 오날은 어더 자고 來日은 어더 잘고 익고익고 서룬지고 妻子眷畜 奴婢待之 헛놈의게 전 ㅎ고 단독 一身 되녀소나 양반의 子弟로 선영 괴물 남의게 傳장 ㅎ고 니 스르 무엇허리 죽기로 結端 ㅎ고 빗들 거러 잡마지고 업드러지며 불이라도 달여들고 물이라도 뿌여든이 죽기난 안이 ㅎ고 압프기만 몹씨 ㅎ고 살아난이 질고 진계 목숨이로다 스름따닥 니 八字를 불어 ㅎ든이 엇지 이리 賤켜 되어나고 익고익고 서룬 니八字야 낙낙長松 ㅅ뎨 올라 空中의 등명실 ㅅ려져도 안이 죽고 스르난이 익고익고 각갑 ㅎ너 니 죽것너.” (김동욱 20장본, 16-뒤)

이 부분에 관심이 가는 것은 유리걸식하던 옹고집이 끝내는 죽기로 결단한다는 데 있다. 옹고집은 불에 달려들고 물에 뛰어들며 나무에서 떨어지기까지 하지만 “압프기만 몹씨 ㅎ고” 죽지 않는다. 그러자 이제는 도적떼를 찾아가고 호랑이굴에 제 발로 들어간다.

38) 그간의 연구에서는 크게 장모의 유무(최래옥, 정충권, 학승/부모학대/장모/조강지처 등의 유무(김종철)를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최혜진 역시 이를 계열 분류에 사용하였다(최혜진 앞의 논문, 601면). 최래옥, 『옹고집전의 제문제 연구』, 『동양학』 제19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정충권, 『<옹고집전> 이본의 변이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제4집, 판소리학회, 1993; 김종철, 『<옹고집전>과 조선후기 요호부민』, 앞의 책 참조.

최근에 결말 구조만을 대상으로 한 논의에서 옹고집전>의 결말이 1) 패망, 2) 죽음, 3) 복귀, 4) 부귀영화로 나뉜다고 보기도 했지만(오수민, 『<옹고집전> 결말을 중심으로 살펴본 주제 의식의 변이』,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옹고집의 죽음은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39) 최혜진, 위의 논문, 600면; 이유경, 앞의 논문, 297면. 이를테면 김동욱 20장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방의 등화도 것지고 우의로나 천상의 북두칠성이 잉도라지고 밤도 야심 ㅎ고 광더의 목도 쉬어썸이 그만져만 파양곡을 알외옵니다.” (김동욱 20장본, 20-뒤)

翁古執 밋친 밋음 도적굴을 츠즈갈 제 山은 疊疊 蒼松은 울밀한 디 絶壁上  
 비우 밋터 가만이 살페본직 果然 도적黨이 모와난디 일片廣口景 조흔디 白布帳  
 막 둘러치고 노점 山谷 집픈 고디 商山의 子龍이 북병 모듯 괴운 세고 우악한  
 놈덜이 만이 모와난디 ‘날 죽여라’ 호고 알각 달여들어, (중략)

한창 이리 분주할 제 그 중의 슈즈 도적 한나 썩 나오든이,

**“너으들 다 드르르 우리 호들이 모인 디라도 글이 못할 디 천여 명 모와난디  
 표 안호고 올진디 무신 쏘가 잇는지 무셔운 놈인이 우리가 니썩난 슈가 올타.”  
 모도 다 도망한즉 翁古집만 남쏘다.** (김동욱 20장본, 17-앞,뒤)

“산중 호즈난 스톱 죽일 듯한이 호즈나 츠즈가즈.” (중략) 翁古집이 비르보고,  
 “올타올타 이 굴문 놈더리 조흔 놈을 보면 오직이나 잘 잡아 먹으손야.”

호고 달여든이 **호랑이 잘잡혀녀 퀘위 남출 썩썩 속의 송엽을 히치하고 바람  
 을 좇츠 슈루루 번뜻 쑤여 다라나난고느.** (김동욱 20장본, 17-뒤~18-앞)

그러나 도적은 물론이고 호랑이까지 옹고집에게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린다. 옹고집은 이렇게 다섯 번의 자결 시도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한다. 개과천신 하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결말을 보이는 이본들에서 쫓겨난 옹고집이 죽기를 결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자결의 의지를 밝히는 경우는 드물다. 살아 무엇하겠느냐고 말하면서도 무서워서 죽을 생각을 못하거나, 금강산으로 구경을 가기 바쁘다.<sup>40)</sup> 하지만 김동욱 20장본에서 옹고집의 결의는 제법 굳세다.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고, “질고 진계 목숨이로다”(16-뒤), “정녕 이계 천벌이라”(18-앞) 외치는 옹고집은 비장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이본에서보다 옹고집의 참회에 진정성이 느껴지며, 연민을 자아낸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금강산을 유람하며 호시절을 보낸 옹고집도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왜 김동욱 20장본의 옹고집은 절절히

40) “목을 밋어 죽즈한덜 차마 압흐 못 죽것다. 물에 빠져 죽즈한덜 물얼 보면 겁이 나고 또한 고향을 바라보이 철양 한숨 절노 난다.” (연세대본 <옹고집전>, 교주본 198면)

“참용생원 기막혀 우난 말이 성주도 아죽흐드 흉악흔 놈 말을 듯고 무죄흔 나열 이디도록 구죽하이 니 살아 무엇허리 방사를 다 말이고 유산구경 가자셔라.”(김동욱 소장 21장본 <翁固執傳>, 17-뒤)

“죽밧기 할 수 업다 지결하야 죽자하미 차마 못할너라 할길업서 유산 귀경하려 하고 죽장땡화 어려잡고 금광산 바리보고 허위허위 오나갈 제 (후략)” (박순호 소장 32장본 <옹씨전 권지후라>, 26-뒤~27-앞)

후회를 하고도 죽고 마는 것일까. 이와 같은 결말은 김동욱 20장본이 지닌 창본의 성격과는 무슨 관계에 있을까. 옹고집의 죽음으로 끝나고마는 <옹고집전>의 결말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하겠다.

#### IV. ‘뜻밖의 결말’의 미학적 의미: 새로운 ‘판’을 향한 향유층의 욕망과 관련하여

판소리 문학에는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있으며, 이로써 작품이 구축하는 의미망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sup>41)</sup> 여기에 더해 판소리는 “장황한 수사, 전체적 흐름에 비해 불필요하게 부연된 사실, 모순되는 에피소우드, 서술의 관점 및 태도의 혼란”<sup>42)</sup> 등 때문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또한 상식이 되었다. 따라서 판소리 문학에서 서사적 개연성이나 필연성이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제시되는 상황 그 자체의 흥미와 감동을 추구한다는 판소리의 미학적 특징을 상기하면 ‘뜻밖의 결말’은 그저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토끼전>과 <옹고집전>의 ‘뜻밖의 결말’이 왜 하필 공허 등장인물의 죽음으로 귀결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고전소설의 이본들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며 의미 있는 변개도 적잖이 확인되지만, 주요 등장인물의 생사(生死)가 달라지는 정도의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고전소설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말을 보이는 작품으로 언급되는 <변강쇠가> 역시 등장인물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엄밀히 말하면, <변강쇠가>는 이미 죽은 변강쇠가 다시 죽음으로써 끝난다. 여기에 더해 <장끼전>의 일부 이본에서도 까투리가 죽는 결말이 확인된다. 특히 <변강쇠가>나 <장끼전>의 일부 결말이 충격적이고 이질적이라는 사실 외에도, 이 두 작품의 존재 자체가 판소리 문학이 ‘기괴함’을 미학의 한

41) 조동일, 『홍부전의 양면성』, 인권환 편, 『홍부전 연구』, 집문당, 1991.

42) 김홍규, 『판소리의 서사적 구조』, 조동일·김홍규 편,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 비평사, 1978, 103면.

축으로 형성하고 있었다는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기도 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sup>43)</sup> ‘뜻밖의 결말’이 그저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논의의 장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현재 소리판에서 부르는 <수궁가>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토끼는 생환하고, 자라는 수궁으로 돌아가며, 용왕은 치유된다. 자라가 토끼 똥을 가지고 귀환해 용왕을 낮게 했다고도 하고,<sup>44)</sup> 하릴없이 돌아가려고 했던 자라 앞에 선관도사가 내려와 신약을 주었다고도 한다.<sup>45)</sup> 도망간 토끼를 대신해 산신령이 노토(老兔) 한 마리를 보내주었다고도 하고,<sup>46)</sup> 자라가 돌아와 보니 용왕이 이미 치유되어 있었다고도 한다.<sup>47)</sup> 자라를 죽이지 않고도 이야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는 것이 현전하는 <토끼전> 이본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옹고집전>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옹고집을 죽여야만 이야기를 끝낼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죽었다는 것은 분명 이와 같은 죽음을 통해 구축되는 미학이 있으리라 짐작하게 한다. 이에 대해 답하기 전에, <장끼전> 결말 중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목을 검토해 보자.

갓토리 이른마리 다시곰 생각하니 너팔자 게박햐야 승부를 자조하니 소요이라 하니. 중기난 본 체도 안니하고 내려 시신 부목등니 그렇저러그 신명만 누취하고 광더흐 환세 간의 니 몸 용신 포기하다 슈다흐 저슈금의 승면히기 못참히니 아모르며 승외용신희기 어렵스라. 츠라리 히정자서 고기나 되오리라. 동희을 향서 편편이 나라서 신을 버셔 간의 늦고 너울버셔 후려치고 망망디히 풍파 중의 아조 덩평 바져 이리저리 단니더라. (이수봉 소장 <자치전나라>)<sup>48)</sup>

43) 김중철, 앞의 책, 1996.

44) 신재효본 <토별가>, 김연수장본 <수궁가>, 정광수장본 <수궁가>, 완판본 <퇴별가> 등.

45) 심정순·곽창기 장본 <수궁가>, 김동욱 소장 <토별산수록>, 박순호 소장 <토별산수록> 등.

46) 보성소리 <수궁가>.

47) 윤해옥 소장 <토전>.

48) 현전하는 <장끼전> 이본 중에서 까투리가 자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는 이수봉 소장본 <자치전나라>와 홍옥 소장본 <즈치가라> 정도이다. 이수봉 소장본은 최진형에 의해 결말 부분이 소개되었다(최진형 역, 『장끼전』, 지만지, 2008, 87-93면). 홍옥 소장본에 대해서는 정출현이 언급한 적이 있다(정출현, 『<장끼전>에 나타난 조선 후기 유랑민의 삶과 그 형상』, 『고전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문학회, 1991, 248면).

까투리는 자신의 기박한 팔자를 탓하며 동해로 간다. 차라리 바다에 빠져 고기가 되겠다는 것이다. 망망대해로 몸을 던진 까투리는 “이리저리” 다니다가 죽는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 모여 그의 비문을 써준다. 이처럼 까투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장끼전>의 결말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sup>49)</sup> <장끼전>의 합의된 결말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존재하지만,<sup>50)</sup> 까투리가 죽는 결말이 적극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까투리가 겪은 중첩된 고난과 폭력에 주목해보면 까투리의 죽음이 우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해자로서 까투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관심을 결말까지 유지한 결과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sup>51)</sup> 까투리가 죽은 것은 뜻밖이기는 하지만, 결코 황당하거나 터무니없는 결말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까투리의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 ‘이후’이다. 장끼가 죽고 홀로 남겨진 까투리는 개가를 할 수도 있고, 수절을 할 수도 있다. 수많은 이본들의 존재를 통해 까투리에게 펼쳐진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작품 속에 그려진 그의 선택은 어느 경우에도 ‘순간적’인 것이다. 문제는 까투리의 선택은 순간적이지만 그의 삶은 지속된다는 데서 생겨난다. 까투리가 이미 여러 차례 상부(喪夫)를 했다는 작품 속 서술은 앞으로 지속될 까투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일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임을 예견하게 하기 때문이다. 남편은 언제든지 다시 죽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까투리가 죽어버린다면, 이와 같은 선택항은 아예 자취를 감춘다. 죽음이라는 선택은 개가나 수절과 달리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까투리는 죽음을 통해 비로소 선택의 부담에서 벗어

49) 이를테면 최진형은 “심심할 썩에 보고 한번 우슴죽 하니”라는 필사기에 주목하여 이 작품이 진지하게 수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최진형, 『판소리 서사체의 향유 관습과 <장끼전>』, 『서사문학과 문화담론』, 보고서, 2008, 203~204면).

50) <장끼전>은 결말 또한 매우 다채로운데, 대개 개가(改嫁) 대목의 유무를 기준으로 계열을 나눈다. 이 중에서 까투리가 새로운 장끼에게 개가를 하는 것을 합의된 결말이라고 보기도 하지만(이문성, 『고대본 <자치가>의 특징과 의미』, 『판소리연구』 제36집, 판소리학회, 2013, 422면), 아예 합의된 결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한다(최혜진, 앞의 논문, 382면).

51) 최어진은 <장끼전>을 ‘피해자의 서사’로 읽을 때, 까투리가 폭력으로 위협하는 장끼에게 개가하는 결말, 자결하는 결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장끼에게 개가하는 결말 등을 새롭게 의미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최어진, 『<장끼전>에 나타난 폭력과 그 의미 - 작품의 결말구조와 관련하여』, 『한국고전연구』 제4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난 것이다.

이 점에 유념하면서 다시 <토끼전>을 보자. 앞서 서사의 결말에는 갈등 관계에 놓인 존재들 사이에서 일종의 ‘편들기’가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를테면, 토끼가 살아야 하느냐 용왕이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에서 현전 <수궁가>는 모두 토끼의 편을 들고 있다. 따라서 <수궁가>에서는 토끼만 산다면, 자라나 용왕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도 할 수 있다. 임방울이 불렀던 <수궁가> 중 전집에 실린 것은 토끼가 자라 등에서 내려 도망가는 대목으로 끝나버리며, 김동욱 소장 <토선생별주부입전>에서는 자라나 용왕의 최후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다. 토끼는 살아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토끼전> 작품군의 유일한 주지(主旨)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라가 살아 돌아가고, 용왕 또한 살아남게 된다면 토끼의 삶은 언제든지 다시 위협받을 수도 있으리라는 사실이다. “끝없는 탐욕”이야말로 용왕을 규정하는 핵심이라고 본 견해는 바로 이 점을 간취한 결과이다.<sup>52)</sup> 하지만 용왕이 죽는다고 수궁이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이본에서 용왕은 세자에게 전위를 하고 죽는다. 만약 세자가 다시 병이 든다면 토끼는(혹은 또 다른 토끼가) 수궁으로 끌려가야만 할 것이라 예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용왕이 살아있는 한 <토끼전>의 이야기는 영원히 유효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갈등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둘 사이의 생사를 결정짓는 교량, 즉 자라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아닐까. 자라가 죽는다면 토끼를 수궁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토끼전>을 읽은 사람이라면, 수궁에는 자라처럼 육지행을 감행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자라가 수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본에서 용왕이 곧 죽고 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역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여기에 더해 자라 스스로도 용왕의 존재와 수궁의 삶에 대해 원망과 회한의 감정이 있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라는 이념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자라가 갑작스럽게 들려온 수궁의 소식에 자결한 것은 수궁이 언제든지 자신의 삶에 다시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자각 때문은

52) 정출현, 「<토끼전>의 작품구조와 인물형상-가람본 <龍兎歌>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제18집, 일지사, 1992, 214면.

아니었을까. 아니면 적어도, 자라가 수궁에 돌아가 용왕을 위해 복무하게 된다면 토끼가 다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낀 향유층들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는 아니었을까.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면 <토끼전>이 그리는 자라의 자결은 <토끼전>이 구축하고 있는 사회적 전형들 사이의 대립 구도를 완전히 해체해 없애고, 이로써 ‘선택’과 ‘편들기’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옹고집전>에서 옹고집으로 대표되는 계층은 피수탈층과 반대에 놓인 계층이다. 옹고집과 같은 인간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그를 향촌사회에서 퇴출시킬 것인가 다시 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고집은 대부분의 이본에서 다시 포용된다.<sup>53)</sup> 주지하듯이 판소리 문학에 나타나는 악인들은 대단히 능동적이거나 계획적인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sup>54)</sup> 그를 일방적으로 끝까지 미워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옹고집에게 반성과 개과천선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판소리문학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매우 자연스러운 설정인 셈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간의 존재를 현실의 맥락에서 의식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 반성하는 옹고집을 굳이 죽이고 만 김동욱 20장본의 결말이 더욱 석연치 않게 느껴진다. 김동욱 20장본에는 옹고집과 같은 존재를 향한 곤란함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sup>55)</sup>

수차례 자결을 시도하는 옹고집을 살려두었다가 끝내 ‘변강쇠’처럼 죽게 만든 것은 그와 같은 인간은 결국 ‘죽어야’ 마땅하다는 인식의 소산일 가능성도 있다.<sup>56)</sup> 개과하고 돌아온 옹고집의 죄를 다시 언급하는 대목에서 그와 같은 인식이 느껴진다. <심청전>에서 뽕덕어미가 처결의 장으로 끌려와 능지처참

53) 박순호 소장 20장본 <용성원전>의 결말에서 옹고집은 불기 삼천장을 맞고 집에 돌아와서도 처자노복들에게 외면당한다. 이에 대해서 정충권은 초기 <옹고집전>이 옹고집의 파멸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했다(정충권, 앞의 논문, 1993).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파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죽음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결말이라는 생각이다.

54) 정병욱, 앞의 책, 91면.

55)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김동욱 20장본에서는 가옹 역시 진웅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면모가 두드러진다는 점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유경은 이 점에 대해 ‘악한 옹고집’의 이미지만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보았지만(이유경, 앞의 논문, 291면), 가짜와 진짜의 구분은 모호해진다는 점에 주목해보면 여기에서도 비슷한 ‘곤란함’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56) 이유경은 이에 대해 “지난 날 행한 불의지사에 대한 확실한 응징(위의 논문, 296면)”이라고 하기도 했다. 다만 본고에서는 옹고집의 자살기도가 반복되고 그의 고통이 커질수록 그가 반성할 수 있는 여지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했을 때, 이와 같은 결말은 ‘똥’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 말이다. 그러나 앞서 노승의 태도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옹고집을 죽이는 식의 가혹한 처벌은 작품의 정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옹고집이 죽는 <옹고집전>에서는 옹고집의 반성 여부나 옹고집에 대한 징치 여부를 뛰어넘는 관심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옹고집과 같은 인간 그 자체라는 생각이다. 옹고집 같은 인간의 개과천선을 불신하는 향유층의 존재를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57)</sup> 그렇다면 옹고집과 같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피수탈계층의 삶은 언제든지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품의 결말에 작용한 것은 아닐까. 혹은 옹고집이 사라진다면, 그와 같은 인간을 완전히 포용하지도, 완전히 거부하지도 못해 생기는 곤란함 역시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점을 감안했을 때, 옹고집의 죽음에서 ‘선택’과 ‘편들기’가 필요 없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향유층의 욕망을 읽어내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자라가 자결을 하고, 옹고집이 끝내 죽어버리는 결말은 생(生)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에서 어떤 현실이든지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민중의 삶과는 정반대의 형상을 하고 있다. 까투리의 자살이나 변강쇠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결말이 일전 경직된 사고의 결과로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셈이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죽음으로 끝맺고 마는 결구의 방식은 그것이 ‘세계의 끝’이나 ‘종말’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라는 데 핵심이 있다는 생각이다.<sup>58)</sup> 자라(와 용왕)는 죽었지만 이 때문에 비로소 토끼는 계속 살아가고, 옹고집이 죽었지만 향촌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계속 삶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까투리는 강물에 투신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유로워진 듯 보이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작품 속에서 사회적 전형들 사이의 대립 구도가 해체되는 것은 이 고달픈 세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는 경직된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살아보고 싶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토끼전>과 <옹고집전>의 ‘뜻밖의 결말’에는 완전히 새로운 ‘판’에 대한 희구가 담겨있

57) 이유경, 위의 논문, 295면. 김종철 역시 강전섭본에서 옹고집이 집에 돌아와 불만을 늘어놓는 장면을 언급하며, “옹고집과 같은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부정적 인물들의 개과천선이란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김종철, 『<옹고집전>과 조선 후기 요호부민』, 앞의 책, 227면).

58)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프랭크 커머드, 조초희 역, 『종말 의식과 인간적 시간- 허구 이론의 연구』, 문학과학사, 1993 참조.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실 우리는 <변강쇠가>를 통해 판소리 문학에서 ‘편들기’와 ‘선택’이 어떻게 거부될 수 있는지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이 작품은 결말에 이르기까지 특정 인물이나 가치에 대해 옹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sup>59)</sup> 물론 <변강쇠가>가 어느 편도 들지 않는 방식으로 작품의 미학을 구축하고 있다면, 앞서 살펴본 <토끼전>이나 <옹고집전>의 경우에는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 자체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작품이 반드시 특정 견해나 인물에 대해 편을 들어야 하며, 그것이 관철되는 방식으로 끝맺어야 한다는 서사적 관점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관’을 형성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또 서사적으로도 개연성이 매우 떨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든 ‘판소리’나 ‘소리관’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 판소리 문학의 가치는 서사적 개연성이 아니라 “삶의 진실성”에 있기 때문이다.<sup>60)</sup> 판소리 문학이 그리는 ‘뜻밖의 결말’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향한 향유층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까닭이다. 선택의 부담을 없애고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 말이다. 이와 같은 욕망은 어찌면 가장 판소리 문학답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다양한 국면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 V. 결론

우리는 고전소설의 ‘결말’에 대한 일종의 기대를 갖고 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등장인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결말 말이다. ‘뜻밖의 결말’로 끝나는 이본들이 작품성이 떨어진다고거나 소수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뜻밖의

59) 김종철, 『변강쇠가와 기괴미』, 앞의 책, 50~51면. <변강쇠가>가 끝내 작품 내 갈등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점 때문에 이 작품은 ‘기괴미’를 구현하고 있다고 논의되었던 것이다.

60) 정병현, 앞의 논문, 64면.

결말'을 본격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 의미화하는 순간, 작품 세계는 일관성을 잃게 되고 이본간의 '수준'을 이야기하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가 '당대'의 관점과 얼마나 (불)일치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 고전소설 연구가 개별 이본들의 특징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뜻밖의 결말'에 주목해봄으로써 판소리 문학의 미학을 새롭게 규명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간 다채로운 결말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던 <토끼전>과 <옹고집전> 서사를 분석하여 '뜻밖의 결말'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서사의 내적 필연성과 개연성을 감안했을 때, <토끼전>에서는 자라의 자결이, <옹고집전>에서는 옹고집의 죽음이 가장 의외의 결말, 즉 '뜻밖의 결말'라고 보았다.

등장인물이 죽는 끝맺음은 고전소설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도 매우 특이할 뿐만 아니라 판소리 문학의 합의된 서사나 특유의 해학적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듯 보이며, 작품내적으로 예비되지도 않아서 매우 이질적이고도 돌출적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죽음을 통해 서사에 내재되어 있는 대립 구도가 해체되고, 이로써 선택과 편들기의 부담이 사라진다는 점에 주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장끼전>과 <변강쇠가>에서도 유사한 결말이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와 같은 결말이 판소리 문학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의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결말 맺기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자 하는 향유층의 욕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이상의 결말은 판소리 문학의 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민중의 생명력, 유연한 사고, 해학성 등과는 배치되는 듯 여겨지지만, 결국 완전하게 자유롭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구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판소리 문학의 본질에 닿아있는 점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본고의 논의는 그간의 이본 연구를 통해 축적된 선행연구들의 힘입은 바 크다. 본고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논증되어야 할 지점 또한 많다. 특히 작품 속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죽음의 의미가 달리 해석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뜻밖의 결말'로 함께 다루었지만, 개연성과 필연성이 떨어지는 정도 또한 상이해서

섬세한 비교가 동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이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길 바란다.

## 참고문헌

### 1. 자료

-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김진영 외 편, 『토끼전 전집』 1-6, 박이정, 1997.  
\_\_\_\_\_ 외 편, 『실창 판소리전집』, 박이정, 2004.  
서유석 외, 『옹고집전·배비장전의 작품세계』, 보고서, 2013.  
이유경 외, 『장끼전의 작품세계』, 보고서, 2013.  
조희웅,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 1999.  
최동현 교주·박승배 번역, 『한영대역 수궁가 바디별 전집』 1-5, 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발행, 신아출판사, 2010.  
최진형 역, 『장끼전』, 지만지, 2008.  
한용환, 『소설학사전』, 문예출판사, 1999.

### 2. 단행본

- 김동건, 『토끼전 연구』, 민속원, 2003.  
\_\_\_\_\_, 『수궁가·토끼전의 연변 양상 연구』, 보고서, 2007.  
김중철,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인권환 편, 『흥부전 연구』, 집문당, 1991.  
\_\_\_\_\_, 『토끼傳·水宮歌 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정병욱, 『한국의 판소리』, 집문당, 1981.  
정충권, 『흥부전 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3.  
조동일·김홍규 편,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 비평사, 1978.  
최광석, 『토끼전의 지평과 변이』, 보고서, 2010.  
최동현 외, 『수궁가 연구』, 민속원, 2001.  
최진형, 『서사문학과 문화담론』, 보고서, 2008.  
판소리학회 편, 『판소리의 세계』, 문학과지성사, 2000.  
화경고전문학연구회 편,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2002.  
프랭크 커머드, 조초희 역, 『종말 의식과 인간적 시간-허구 이론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3.  
H. 포터 애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 3. 논문

- 강유정, 『오정희 소설의 결말 구조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59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185~215면.
- 고영진, 『환상소설의 결말에 관한 연구·구별모, 이기호, 최제훈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5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5~28면.
- 김중철, 『소설의 이본 파생과 창작 교육의 한 방향』, 『고소설연구』 제7집, 한국고소설학회, 1999, 353~375면.
- 김한식, 『소설의 결말을 위한 시론』, 『프랑스어문교육』 제7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1997, 237~260면.
- 서대석,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과 한국인의 의식』, 『관악어문연구』 제3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233~242면.
- 서유석, 『<장끼전>에 나타나는 ‘뒤틀린’ 인물 형상과 여성적 시선』, 『서강인문논총』 제29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235~264면.
- 서인석, 『고전소설의 결말구조와 그 세계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소인호, 『<장끼전>에 나타난 수절과 개가의 문제』, 『인문과학논집』 제41집,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0, 123~133면.
- 오수민, 『<옹고집전> 결말을 중심으로 살펴본 주제의식의 변이』,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윤분희, 『한국 고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결말처리 방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이문성, 『고대본 <자치가>의 특징과 의미』, 『판소리연구』 제36집, 판소리학회, 2013, 421~447면.
- 이유경, 『단국대 20장본 <옹고집전이라>의 특징과 의미』, 『한국학연구』 제57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275~302면.
- 이진오, 『토끼전의 계통과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정출현, 『<장끼전>에 나타난 조선 후기 유랑민의 삶과 그 형상』, 『고전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문학회, 1991, 234~277면.
- \_\_\_\_\_, 『<토끼전>의 작품구조와 인물형상 - 가람본 <鼯兔歌>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제18집, 일지사, 1992, 194~229면.
- 정충권, 『<옹고집전> 이본의 변이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제4집, 판소리학회, 1993, 317~347면.
- \_\_\_\_\_, 『<토끼전> 결말의 변이양상과 고소설의 존재 방식』, 『새국어교육』 제71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521~540면.
- 최동현, 『<홍보가> ‘놀보 박 타는 대목’의 전승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제35집,

판소리학회, 2013, 217~249면.

최래옥, 『옹고집전의 제문제 연구』, 『동양학』 제19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187 ~217면.

최어진, 『<뽕덕어미> 삽화 전승의 차이와 그 의미-원판본과 신재효본 비교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40집, 판소리학회, 2015, 231~263면.

\_\_\_\_\_, 『<장끼전>에 나타난 폭력과 그 의미 - 작품의 결말구조와 관련하여』, 『한국고전연구』 제4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97~125면.

최혜진, 『<옹고집전>의 이본과 변모 양상 연구』, 『판소리연구』 제36집, 판소리학회, 2010, 595~625면.

\_\_\_\_\_, 『<장끼전> 작품군의 존재 양상과 전승 과정 연구』, 『판소리연구』 제30집, 판소리학회, 2010, 353~394면.

## ‘Unexpected Endings’ in Pansori Literature

Choe, Och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unexpected endings’ in Pansori literature and examine their aesthetic meanings, especially focusing on *Tokkejeon* and *Onggojipjeon*.

In terms of the inevitability and probability of narratives, an ‘unexpected ending’ could be defined as an ending that seems to be relatively less probable and inevitable and deviate from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Pansori literature. In this regard, an ‘unexpected ending’ is a concept that is contrary to an ‘agreed ending’ to which diverse agreed meanings have been assigned. Among the numerous variations of endings, one of the most ‘unexpected endings’ of *Tokkejeon* is that the turtle takes his own life. In *Onggojipjeon*, the version which ends with Onggojip’s death is one with the most unexpected ending.

The unexpected ending structure built up by the deaths of characters is not only neutralizes the interclass conflicts inherent in the narratives but also answers to the call for creation of a new world where there is no need to take sides with any character. Therefore, these endings align well with the essence of Pansori literature, showing us the desires of people who enjoyed it for a whole new life with freedom in a new world.

keywords: unexpected ending, ending, ending structure, death of characters, suicide,

*Tokkejeon*, *Onggojipjeon*

접수일자: 2020. 9. 30. 심사기간: 2020. 10. 1.~2020. 11. 10. 게재결정: 2020. 11. 10.
---